

## 신젠타, '2010 대한민국 BSC 전략실행 대상' 수상

### 8. 24. 한경 다산홀서, 외국계기업 분야 수상

신젠타코리아(주)(사장 김용환)가 지난 8월 24일 한국경제신문과 웨슬리퀘스트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2010 대한민국 BSC(Balanced ScoreCard: 균형전략 실행 체계)전략실행 대상' 에서 외국계기업 분야를 수상했다. 이 상은 BSC를 활용해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공공조직과 민간 영리조직을 선정하는 상이다.

'제6회 BSC대상'에는 각계 70여개 회사와 기관이 응모했으며 외국계기업분야에서는 신젠타 코리아가 공공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 금융기관부분에서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 NGO부분에서는 월드비전 총 4곳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황경진 경영지원본부 상무가 임직원을 대신하여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상을 수



여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주우진 교수(서울대 경영학)는 심사평을 통해, 계획-실행-리뷰의 선순환구조를 갖춘 성과지표관리시스템을 선정이유로 밝히면서, 특히 성과지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화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언급했다. 신젠타에서 BSC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환 과장은 '성공적인 BSC 정착은 바로 CEO의 단호한 결의로부터 시작된다'는 성공 이야기를 소개하고 참석한 청중들로부터 많은 공감대 형성했다.

## 충남농기원, 벼멸구 '방제경보' 발령



충청남도농업기술원(원장 손종록)은 벼멸구가 서해안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다발생했다고 밝히고 큰 피해가 우려 된다며 '벼멸구 방제 경보'를 발령했다. 벼멸구는 우리나라에서 월동을 못하고 매년 6월 중순부터 장마와 더불어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중국 대륙으로부터 날아와

2~3세대를 경과한 후에 밀도가 늘어나면 피해를 입힌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관계자는 "금년의 경우 고온이 지속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벼멸구가 벼포기 20주당 최고 1,500마리까지 발생한 논외의 경우 긴급방제를 하지 않으면 해충의 밀도가 더욱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의 벼가 출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제농약으로 살포해야 줄기 아랫부분에 붙어있는 벼멸구를 효과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동부한농, 새 통합브랜드 '한농' 선보

(주)동부한농(대표 차동천)이 농자재기업 최초의 새 통합대표 브랜드 '한농'을 선보였다. 동부한농은 브랜드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새대표 브랜드 '한농'을 작물보호, 작물영양, 종묘, 동물약품 4개 사업부 모든 제품에 적용하여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새 브랜드 '한농'은 고객 존중의 모습을 형



상화 해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로 더 큰 고객가치를 추구하는 동부한농의 고객섬김 자세를 표현했다. 또한 주황색을 메인컬러로 사용하여 고객에 대한 감

사와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다. 마케팅 팀 관계자는 "한농'을 통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유일의 종합농자재기업으로서 위상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는 벼멸구 발생 피해지역에 약제지원으로 공동방제, 무인헬기 등의 방제를 하고 있으나 벼농사 후기에 방제 가능한 분제약제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 시효경과 분제 농약에 대한 성분검사후 사용허가 및 피해지역에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요청을 해왔다.

### 작물보호협,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 개최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알리기 위한 교육, 홍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작물보호협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 동안 대한주부클럽연

합회 청주소비자정보센터 회원 40명을 초청, 「우리 농산물 및 농약안전성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

(주)경농 대구공장에서 개최된 첫날 세미나에서 경북대 김장억 교수는 강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류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도심지 주부들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소비자단체 종사자들의 올바른 인식과 역할을 당부했다. 세미나 후에는 대구공장 생산현황 및 최신 자동화 시설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철저한 위생과 관리속에 생산, 출하현장을 지켜본 소비자들에게서 농약에 대한 믿음을 한층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이튿날인 10월 1일에는 (주)경농 경주중앙연구소를 방문, GAP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GAP 관리체계하에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농약의 역할에 대한 강의를 경농중앙연구소 이재영 부장

## 작물보호協, 농진청 관계관 초청 간담회 개최

### 9. 14 기술자와, 현안사항 토론 및 발전방향 모색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엄병만)는 지난 9월 14일 협회 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 관계관 3명을 초청한 가운데 「기술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3명과 기술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다소 지지부진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사 교류를 갖고자 작물보호협회가 마련한 것으로, 특히 유통농약 관리규정 변경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등록신청서 접수 및 처리기간 삭제에 따른 구체적 관리방안, 기타 2011년 재등록 자진취하 품목에 대한 유통관리 방안과 원제 유효기간 및 재등록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업계 입장, 전문위원회의 문호 개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날 참석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이광하 과장은 “농약관리 시스템 전반을 모색할 수 있는 호기였다”고 말하고 “제도 변화 및 일부 변수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으



므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로를 믿고 노력하면 반드시 윈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의 협조와 기대를 갖게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정창국 기술위원장(한국삼공(주) 중앙연구소 소장)은 “관과 산업계가 서로의 시각을 공유하며 펼친 진솔한 간담회가 농약산업 발전을 유인, 가속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밝혔다.

작물보호협회의 5개 위원회 중 하나인 기술위원회는 업계의 기술분야 최고 위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위원회는 매년 분기별로 총 4회 개최되며 제도개선, 품질혁신,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에 이르기까지 농약과학기술의 모든 현안이 심도 있게 토의된다.

으로 부터 듣고 선진연구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GAP사파인농봉가를 방문, 교육생들이 직접 현장 실습을 함으로써 생생한 체험교육이 이루어졌다.

### LG생명과학 본사 이전 새출발

(주)LG생명과학(사장 김인철)이 지난 9월 27일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고 새롭게 출발했다. 이

전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92번지 LG광화문빌딩이며 전화번호는 02-6924-3910 및 팩스번호는 02-6924-3064이다.

### 인사

#### ■ 성보화학

△박연일 전무이사 △우창명 기업부설연구소장